

“세계청년대회, 전북 글로벌 도약 기회로”

전북연구원, 순례관광 거점 위해 2027년 대회 적극 활용 세부 계획 수립 필요

우수한 종교유산을 지닌 전북을 세계 순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027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일 이 슈브리핑을 통해 2027년 서울과 전국 14개 천주교 교구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중장기적인 종교유산 활용 전략 아래 체계적으로 대회를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제창으로 시작돼 3~4년에 한 번씩 열려 평균 150만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청년 순례·문화 교류 행사다.

지난 199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400만 명이 운집했고,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약 150만 명이 참가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는 국내·외 100만 명이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외국인 참가자는 약 20~30만 명이 될 것이라는 게 대회 조직위의 전망이다.

우리나라 대회 기간은 2027년 7월 말부터 8월 초로, 대회 기간 중 처음 4박 5일은 14개 지역교구에서 각각 교구대회를 열고, 이후 서울로 모두 집결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본대회를 갖는다. 본대회에 앞서 14개 교구에서 진행되는 '교구대회'는 각 지역으로 세계 청년들이 분산 체류하며 지역 문화와 신앙, 지역민과 교류하는 문화·관광 복합 체류형 국제행사로 진행한다.

전북은 전주교구대회 개최 지역으로서, 참가 예상자를 14개 교구별로 나눌 경우 외국인 1만여 명을 포함해 4~5만 명의 참가자가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회 기간 중 교황이 역사적 장소나 순례 성지를 직접 방문하는 전례가 있어,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유해가 발굴된 전주 초남이 성지 등 전북 성지를 교황이 직접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황의 전북 방문이 현실화되면, 이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 국제적 주목도 상승과 전북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며, 전주교뿐 아니라 일민인 대상 순례·문화 관광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는 “세계청년대회를 단순 종교행사로서만 보기보다, 전북의 종교유산과 K-문화를 연계한 세계 순례관광 거점 조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전북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폭넓은 협의체와 실행계획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전주교구, 전북자치도, 시군, 종교단체, 문화·관광·의료·치안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광역단위 협의체 구성과 '교구의 날', '지구의 날', '공동체의 날' 등 단계별 행사의 체계적 지원의 중요성과 외국인 환대, 다국어 안내, 응급의료체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계획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전북의 길 위에서 만나는 신앙과 문화'를 위하여 순례길 정비와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전주교 성지를 연결하는 순례길을 국제 수준으로 정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다국어 표지판, 배리어프리 구간 등을 포함한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K-문화 체험 연계 프로그램 및

세계청년축제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본대회는 서울에서, 체험은 전북에서'라는 전략 아래, 전북만의 특화 K-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시군과 연계해 기획해야 하며 전통공연, K-POP, 음식, 전통의복, 농촌문화 등을 주제로 한 체류형 체험을 통해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청년대회 지역'으로 포지셔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종교공존 브랜드 강화와 국제 순례지·세계유산 추진을 제안했다. 전북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대표 지역으로, 세계종교문화축제와 이웃종교 탐방길 조성 경험이 있다. 이를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종교화합 상징 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초남이 성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순례지 추진, 초남이 추진하는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함께 준비함으로써 전북이 종교·순례관광 국제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만드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세길 박사는 “세계청년대회는 종교교행인 동시에, 청년과 청년, 문화와 문화, 세계와 지역이 만나는 글로벌 연대의 장”이라며, “앞으로 2년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준비를 통해, 이번 대회를 전북의 글로벌 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재)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서는 2일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과 과제협약을 체결했다.

홀로그램 기업 성장 지원 협약

전북디지털융합센터, 13개 기업과 제품 제작 지원사업 체결

(재)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서는 2일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과 과제협약을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완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홀로그램 제품·서비스 선도시제품 창출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 발굴 및 검증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완제품 제작 지원사업 중 품목 지정형의 경우, 7개 유망 후보과제와 BM을 융합해 전북디지털융합센터 및 수행기관의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민강영역으로 보급·확산·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홀로그램 R&D 성과기반 제품 제작 지원사업 선정기업 13개사가 참석하고, 이후에 사업책

입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관리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그동안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재)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키엘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은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홀로그램 기술 교류회,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홀로그램 기술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를 중심으로 지역 내 홀로그램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홀로그램 기업의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첨단 산업 기반을 다져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 혁신포럼 개최

전북자치도, 신규 56개 중소기업에 지정서 수여



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 혁신포럼'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유망 중소기업 56개사를 성장사다리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성장사다리기업 리더스 혁신포럼'을 열고, 신규 기업 지정서 수여와 함께 다양한 성장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캡티브테크놀로지 등이 공동 주관했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237개사가 신청해 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56개사를 대상으로 지정서가 수여됐다. 성장사다리기업 육성사업은 '돌봄→도약→선도→혁신→글로벌 강소기업' 5단계 체계로 이뤄지며, 기술개발, 마

케팅, ESG 진단 등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184개 기업에 총 104억 원이 투입되며, 기업당 최대 7억 원의 용자와 연 3%의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내수와 수출을 모두 실현한 기업을 위한 '혁신기업' 단계를 신설하고, 여행 기업 방지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자율 배분형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정비도 병행됐다. /이만호 기자

포럼에서는 두산(췌관급 박태원 부회장이 '129년 기업의 변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기업 경영 전략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호응을 얻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춰 정교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에서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에서는 오는 11일까지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6실 예정이며,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예비창업자)는 업무 및 회의공간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업체는 1년 계약 후 매해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단, 도박·투기 등 사행성 조장업종 및 불건전업종, 금융·보험·주점·숙박·유형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희망센터는 소상공인 창업·보육 전문기관으로, △사무공간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창업 파트너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RE100 실현 위한 풍력산업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RE10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북형 풍력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2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풍력분과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의 풍력 에너지 과제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2024년 5월 출범 이후 에너지정책, 수소, 풍력, 분산에너지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분과별 실질적 에너지솔루션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군산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민·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형 풍력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워가기 위한 실천방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제1차 회의에서 제안된 △(군산대)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술 고도화 및 지역 인재양성 실증사업' △(건설기계연구원) '주민 이익공유 연계 상생모델 실증사업'의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두 사업 모두 지역 기업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기자재 관련 연구개발 등 신규 과제도 추가로 제안되며, 풍력분과의 실천 아젠다 확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제안된 과제들을 실증 중심으로 구체화해, 향후 RE100 얼라이언스의 실행력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